# 감꼭지나방(*Stathmopoda masinissa*)의 월동처, 발생소장 및 천적에 관한 연구

**김정화, 조수원, 박은철, 김순섭, 강희민, 이주성**
충북대학교 농과대학 농생물학과

감나무의 주요 해충인 감꼭지나방(*Stathmopoda masinissa* Meyrick)의 월동처 조사 , 발생소장 및 기생천적을 조사하기 위해서 충북 영동군 영동읍의 감나무 가로수에서 조사 및 채집하여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년 2회 발생하는 감꼭지나방은 노숙유충으로 월동하는 해충으로서 감나무의 월동장소와 밀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2000년 4월 20, 29일에 감나무 10그루를 上, 中, 下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上부위에서 42.3%, 中부위에서 30.8%, 下부위에서 26.9%로 上부위에서 가장 밀도가 높게 나타났으며, 감꼭지나방 생충율과 사충률은 각각 43.4%, 56.6%로 나타났다.

충북 영동지역의 감꼭지나방 발생소장은 년 2회 성충 최성기를 나타내는데 조사한 결과 1화기는 6월 초순과 2화기는 7월 하순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.

감꼭지나방의 기생천적을 조사하기 위해서 기생 당한 유충 및 용을 채집하여 사육실내에서 25±1℃, 16L:8D, 50~60% RH의 조건에서 사육하여 분류한 결과 4종이 발견되었다. 현재 금좀벌과(Pteromalidae), 맵시벌과(Ichneumonidae), 수중다리좀벌과(Chalididae) 3종이 분류되었으며, 1종은 미분류 상태이다.